

장흥군, 지역청년 소통의 장 ‘장흥 청년 페스타’ 연다

‘청년의 날’ 27일 탐진강변 일원
‘어머니 품속 모두가 청년’ 주제
수공예 체험·청년농특산물 판매 등
“전 세대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장”

장흥군이 2024년 ‘청년의 날’을 맞아 오는 27일 탐진강변에서 제2회 장흥군 청년의 날 기념 ‘장흥 청년 페스타’를 개최한다. 버스킹, 플프마켓, 청년농 특산물 판매장, 먹을거리 부스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구성했다.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24일 장흥군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어머니 품속에선 모두가 청년’이라는 주제로 청년을 비롯한 남녀노소 모두 어울려 즐길 수 있도록 마련했다.

행사는 버스킹, 수공예 체험, 플프마켓, 청년농 특산물 판매장, 먹을거리 부스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구성했다.

주무대에서는 지난 정남진장흥 물축제

제 청년존을 뜨겁게 달궜던 플루티스트 나리, 루나 쿤, 달빛거지들 등 버스킹 공연이 예정돼 방문객의 귀를 즐겁게 한다.

장흥군 청년공동체와 동아리, 로컬컬리에이터들이 석고방향제, 키링, 비누공예 체험 등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청년농의 정성어린 손길이 담긴 특산물 판매장을 비롯한 요거트 아이스크림, 폴드포크 샌드위치 등 판매 부스도 운영한다.

서울시 지역자원 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 ‘넥스트로컬’ 장흥군 창업팀인 코드랩과 코리아바이츠 역시 정남진장흥 물축제에 이어 다시 참여할 예정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아름다운 탐진강의 풍광과 함께 열정적인 지역 청년들이 운영하는 플프마켓, 청년 부스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이번 행사가 전 세대가 함께 어울려 즐기는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나만의 색깔-퍼스널 브랜딩 여행’
구례군, 27일 열린강좌 개최

구례군은 오는 27일 구례문화예술회관에서 ‘나를 찾아 떠나는 퍼스널컬러 이미지 브랜딩 여행’을 주제로 제7회 군민 열린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퍼스널컬러(personal color)란 개인 고유의 피부색과 머리색, 눈동자 색, 머리 질감 등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색을 의미한다.

군은 퍼스널컬러 진단과 프로페셔널 이미지 브랜딩 전문가인 ㈜Luxury Insight 이운경 대표를 초빙했다.

이 대표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컬러를 찾아 스타일링하고, 자신을 더욱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노하우를 군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강연의 주요 내용은 △이미지 브랜딩 요소 △외모와 이미지의 중요성 △퍼스널 컬러의 효과 등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많은 군민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조금 더 쉽게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고 잠재적인 매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2024-2025절기’ 독감 예방접종
장흥군, 연령대별 일정 진행

장흥군이 ‘2024-2025절기’ 독감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접종은 생후 6개월에서 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1차 접종을 시작한다.

다양한 연령대와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일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임신부 및 65세 이상 어르신은 각각 10월 2일과 11일부터, 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한부모 및 다문화 가정)는 10월 18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이번 절기부터는 60-64세 장흥군민 및 장흥에 주소지를 둔 50-64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무료접종을 추가 지원한다. 접종은 관내 위탁의료기관(20개소)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실시된다.

접종을 받고자 하는 군민들은 사전에 접종 일정을 확인하고, 신분증과 접종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장흥=김전환 기자

귀농어·귀촌 정착 시기 공모
고흥군, 11월20일까지 접수

고흥군은 귀농어·귀촌인들의 다양한 정착 사례를 통해 귀농어·귀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2024 고흥이라서 행복한 사람들 이야기’ 작품을 11월 2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수기 공모는 2015년 이후 고흥으로 귀농어·귀촌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2019년과 2020년 정착수기 공모 수상자(최우수, 우수, 장려)는 제외된다. 입선자는 재공모가 가능하다.

공모 주제는 귀농어 귀촌 정착 수기 및 우수사례로, 귀농어 귀촌 동기, 난관 극복 사례, 지역민과의 갈등 해결 사례, 행복한 농어촌 생활 사례 등 귀농어 귀촌 준비에서부터 정착까지의 전 과정을 8~10페이지 내로 자유롭게 서술하면 된다.

우수작품은 1차 서류심사로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2차 선정 심의회를 통해 위원별 평가점수를 종합하여 총 8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우수상은 100만원, 우수상은 50만원, 장려상은 3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선정된 작품은 ‘정착 우수사례 수기집’으로 발간·배포되어 귀농어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고흥 귀농어 귀촌 길라잡이’가 되는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신청희망자는 고흥군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수기 공모 작품과 함께 고흥군 인구정책실에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송민섭 기자



구례군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구례실내체육관 일원에서 개최한 ‘2024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가 우천 속에서도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구례군 제공

구례군 ‘2024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 성료

구례군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구례실내체육관 일원에서 개최된 ‘2024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가 우천 속에서도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전국 최초로 탄소중립과 흙을 주제로 열린 박람회로 전라남도 와 구례군이 주최하고 탄소중립흙살리기 박람회추진위원회가 주관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김순호 구례군수, 장길선 구례군의장(이상 주최기관), 권향엽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 주철현 국회의원(가나다순), 도·군의원 및 관계 부처 기관장 등 총 1만여 명이 박람회장을 방문했다.

갑작스러운 폭우에도 불구하고 비가림

막 등이 신속하게 설치돼 일부 야외 프로그램은 제외한 대부분의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됐다.

개막식은 ‘흙을 살리고 미래를 구하는 구례’라는 주제로 탄소중립 실천과 생태농업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구례군의 의지를 담아냈으며, 주요 내빈의 흙 손도장 퍼포먼스는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주제관은 흙이 생태계와 인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인포그래픽과 영상 자료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해 관람객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다.

기업관에서는 친환경 농업기술을 연구하는 기관과 기업이 탄소 저감 농업기술과 우리나라의 토양 단층 관련 전시를 선

보였으며, 구례 농특산물 판매·홍보 공간에서는 40여 개의 생산, 가공 단체가 산수유, 밤 등 구례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알렸다.

이와 더불어 토양전문가, 청년농업인, 푸드테라피 전문가 등이 참여한 토크콘서트와 한국화 화가인 류재춘 작가의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 진행돼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재미를 제공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우천 속에서도 안전사고 없이 박람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고, 이번 박람회를 통해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구례군은 흙을 살리고 녹색 미래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국제도자아카데미 총회 참석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포르투갈 칼다스 다 레인하(Caldas da Rainha)에서 열린 제51회 국제도자아카데미(IAC, International Academy of Ceramics)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국제도자아카데미(IAC)는 1952년 헨리 J 레이너드가 전 세계 도예가들 간의 상호교류를 위해 스위스 제네바에 설립한 유네스코 문화 부문의 자문기구로 도자 분야에서 국제적 권위를 갖춘 기구이다.

이번 총회는 81개국 1000여 명의 도예작가와 기관들이 모여 국제도자아카데미(IAC) 주요 사업 논의하고 다양한 주제로 학술발표, 회원국 간 교류 활동 등을 진행했으며, 신규회원 기관 소개 및 회원증 수여식을 가졌다.

고흥분청문화박물관은 지난해 9월 국립박물관 최초로 국제도자아카데미(IAC) 회원기관으로 등재돼, 신규회원으로 기관 소개 및 회원증 수여식에 참석하여 전 세계 도자 전문가에게 열렬한 환영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박물관 대표로 참석한 정혜경 관장은 “고흥분청문화박물관이 국제도자아카데미(IAC) 정식 회원기관이 됨에 따라 국제도자 행사 유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제적인 행사 유치 및 참여를 통해 고흥분청사기의 우수성을 세계 각국에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9월 25일부터 10월 6일까지 진행되는 국제도자 워크숍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민섭 기자

‘2024 세계유산축전·선암사·순천갯벌’ 개최

10월 한 달간 오천그린광장 등

순천시는 10월 한 달간 ‘2024 세계유산축전·선암사·순천갯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유산축전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의 가치를 온 국민과 함께 향유하고 확산함을 목표로 국가유산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다. 시는 세계문화유산 선암사와 세계자연유산 순천갯벌을 동시에 보유한 세계유산 대표 도시로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공모에 선정됐으며 2023 세계축제협회 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축전은 ‘유산, 시간이 쌓은 흔적’이라는 주제로 선암사와 순천갯벌 뿐만 아니라 이 둘을 연결하는 도심 속 오

천그린광장까지 행사를 확대해 도시 전체가 세계유산 향유의 장이 되도록 했다.

행사기간 오천그린광장은 세계유산의 가치를 담아내는 특별한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순천만 갈대를 활용한 전시, 불전사물 체험, 모래갯벌놀이터, 전통놀이를 재해석한 남승도 놀이, 힐링아침요가, 지역예술인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체험·전시가 펼쳐질 예정이다.

선암사와 순천갯벌에서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해설 투어, 세계유산의 가치를 체험하는 캠핑과 가을 철새 탐조, 와온 품어제, 거차벌배 경주대회 등 프로그램이 한 달간 진행되고, 시민들과 직접 만드는 축전이라는 취지를 살려 시민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8개의 단체가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축전은 내달 1일 오전 10시 오천그린광장과 그린아일랜드에서 순천만습지가 지 순천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도보)운동을 모티브로 한 탐사르길 걷기 행사로 문을 연다. 행사는 오랫동안 유산을 지켜온 마을주민과 시민·학생·지역사회단체·자원봉사자 등이 참가한다.

특별한 이야기가 담긴 기념식은 내달 6일 오후 6시에 오천그린광장에서 ‘사유의 길·마음으로 생각하는 길’이라는 주제로 시민 3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다.

축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순천 세계유산축전 누리집(www.scwhf.com)을 참고하면 된다.

순천=배서준 기자